

웃음과 눈물을 주제로 금속 널 위에 그린 그림

a study on drawing about laughter and tears on metal

국민대학교 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윤지예

2013

차례

* 서론

1. 연구배경 - 1) 그림과 금속과 나 2) 눈물과 나
2. 연구목적 - 웃음과 눈물을 주제로 금속 널 위에 그린 그림

* 본론

1. 웃음과 눈물

웃음과 눈물의 정의

웃음과 눈물을 담고있는 작품 사례

웨민준 Yue Minjun - 웃음 연작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 게르니카, 우는 여인

인준 Yin Jun - 울음 연작

로이 리히텐슈타인 Roy Liechtenstein - 행복한 눈물, 익사하는 여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웃음과 눈물 - 웃음과 눈물의 심리

문학 작품 속에서 - 비극, 사랑, 감동

역사 속에서 - 전쟁, 자연 재해

이상심리

2. 연구 작품

표현 방법 연구

밑그림

레이저 컷팅 기법을 통해 드로잉을 옮긴 사례

데이비드 걸스타인 David Gerstien, 톰 웨슬만 Tom Wesselmann

금속 널 위에 그리기

젯소 위에 그리기, 금속 널을 굽어서 그리기, 샘플 인쇄하기

작품 결과

* 결론

* 앞으로 참고하고 싶은 책

* 서론

1. 연구배경

그림과 금속과 나

나의 첫번째 장래희망은 분명 화가였다. 어떤 교육기관에도 발을 들여놓기 전에 내가 메모지에 그렸던 새 그림은 소중하게 식탁 유리 안에 보관되었고, 그 뒤로 '미술'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내 삶을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과후 오가던 속셈학원이나 과외는 받아본 기억이 없어도 여러 미술학원을 전전했던 기억은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심이 굵은 연필로 석고상만 진창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신라면 봉지나 북어 따위를 똑같이 색칠했다. 지금보다 더 소심했던 나는 딱히 단짝친구를 만들지 못해서인지 미련없이 상황에 따라 춘천 이곳 저곳의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되어 종착했던 곳은 나중에 알았는데 디자인 전문 미술학원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서울 나들이를 갔을때도 '홍대'로 견학을 가 언니 오빠들 몰래 물감냄새를 훤쳐 맡았던 나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금속공예학과 학생이 되어있었다.

처음 망치와 톱을 손에 쥐던 날은 속이 울렁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의 학교에 진학해 홀로 멋지게 상경한 처지라는 사실에 취해서 정작 별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어디서든 순응해버리는 성격탓인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내 꿈을 상기하기보다는 나름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갔다. 꼼꼼한 손재주보다는 강렬하게 눈을 어지럽히는 빛깔들과 감각적인 느낌들에 더 매료되어있던 나는 금속공예 기술을 배우는 시간에는 도통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느덧 고학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장신구가 몸을 치장하는 장식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는 꽤 즐거웠다. 오히려 3차원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생각에 이곳까지 인도해준 운명에 감사하기까지 했다. 이런 내가 금속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눈물과 나

제 아무리 속상하거나 울분이 터져도 사람들 앞에서는 꼭 눈물을 참아낼 줄 아는, 아파도 안 아픈척, 힘들어도 안 힘든척 할 수 있는 '어른'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나이를 먹을 수록 웬만한 일에는 담담하고, 건조한 사람이 된다고 하던데 내 경우에는 어째 점점 더 물경해지는 듯하다. 창피할 정도로 눈물샘은 늘 비상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뺨 울어제끼고 나면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비가 갠 다음 공기처럼 기분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눈물이 나는 이유를 내 자신조차도 정확히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난 슬픈건가, 억울한건가, 화가 나는 건가, 고마운건가, 기쁜건가, 그냥 힘든건가, 아니면 모두 섞인건가?!?! 게다가 꼭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울고 있는 친구에게 전염되어 함께 통곡 하기도하고, 심지어 가상의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눈물의 원인들과, 눈물이 만들어지는 기관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 또 더 나아가 눈물이 지니는 상징성까지, 눈물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은 눈물이 쉬운 여자인게 부끄러워 어떤 당위성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눈물' 또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웃음'에서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2. 연구목적과 방법

웃음과 눈물을 주제로 금속 널 위에 그린 그림

'웃음이 나는 이유, 눈물이 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원인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 각자의 개성, 생각들이 어느 하나도 틀린 것은 없고 다를뿐이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점점 우유부단해 진듯하다. 이렇듯 원인을 알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다. 뇌의 어딘가가 간질간질하며 감정을 자극해 버리는 것만 같다. 몸 속의 어딘가 어떻게 변하는 걸까? 실제 몸 속을 들여다 볼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마음대로 상상해 본다. 먼저 웃음과 눈물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고, 웃음과 눈물을 주제로 담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회화, 문학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나만의 의미와 상징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 본론

1. 웃음과 눈물

웃음과 눈물의 정의

웃음

미소·고소·홍소·냉소·조소·실소 등이 있다. 또 웃음은 신체적 자극에서, 기쁨에서, 우스꽝스러움에서, 겸연쩍음에서, 연기로서, 또 병적인 데서 오는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웃음의 원인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 ① 홉스는 웃음이란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이라고 하였고, 베인은 타인의 권위와 체면이 상실되었을 때에 느끼는 쾌감이라고 하였다.
- ② 칸트나 립스는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긴장해 있을 때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서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 ③ 쇼펜하우어는 어떤 관념과 관념이 불균형일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신사가 바나나를 밟고 넘어진다거나, 어린이가 어른 바지를 입었을 때 등이다.
- ④ 베르트하이머는 만화를 보고 웃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닮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근사하게 닮았을 때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 ⑤ 베르그송은 자유로워야 할 인간이 부자유한 기계와 같은 운동을 하였을 때, 즉 정신이 물질화하였을 때 웃음이 나온다고 하였다.
- ⑥ 맥도갈은 애교있는 웃음은 상대에 대한 호의의 표시이며, 조소는 상대에 대한 가벼운 비판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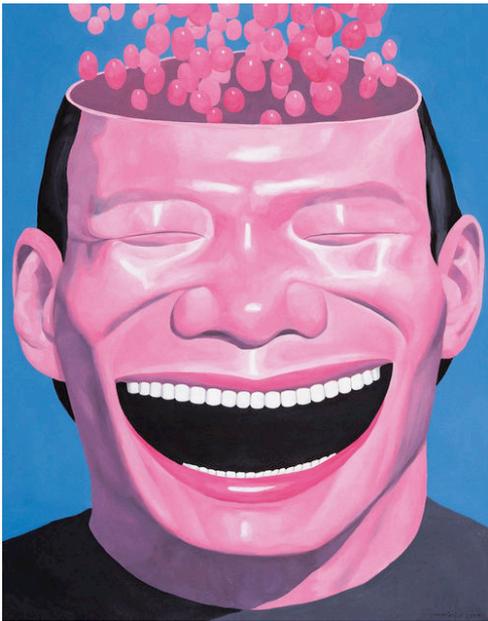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자스틴은 놀람과 기대의 어긋남, 우수와 실패, 부조화와 대조, 사교적 미소, 긴장의 해방, 유희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웃음은 횡격막의 짧은 단속적인 경련적 수축을 수반하는 깊은 흡기로부터 생긴다. 배를 움켜잡고 웃을 때 몸이 흔들리므로 머리는 앞뒤로 끄덕여지고, 아래턱이 상하로 흔들리며 입이 크게 벌어진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능글능글 웃는 것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며, 히죽히죽 웃는 것은 악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깔깔 웃는 것은 기쁨이 없음을 나타내고, 큰소리로 웃는 것은 대범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유아나 어린이의 웃음은 신체적, 감정적이다. 즉, 간지러울 때나 배설물이 나올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으며, 표현은 복잡하다. 아동기 이후는 정신적, 사회적인 웃음이 많아지며 표현은 미소로 변한다. 청년기 이후가 되면 유머가 발달한다. 유머는 자기를 객관시하고, 웃음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눈물

사람의 경우에는 눈꼬리에 가까운 윗눈꺼풀 뒤에 있는 눈물샘 및 그 부근에 산재하는 부누선에서 결막낭 안으로 분비되는 투명한 액체이다. 각막과 결막을 항상 적셔서 이물을 씻어냄과 동시에 각막 상피에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한다. 또, 이산화탄소 등 그 밖의 노폐물을 받아내고, 용균성효소인 라이소자임 lysozyme 이 포함되어 있어 감염방지작용을 한다. 눈물은 내안각의 누호에 모였다가 누점·누소관·누낭·비루관을 거쳐 비강으로 배출된다. 1일 분비량은 1~1.2mℓ 이고 수면 중에는 분비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는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젊은 사람은 노인보다 분비량이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삼투압은 혈장과 같고, pH는 약알칼리성이다. 눈물샘은 삼중으로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고, 슬플 때에 다량의 눈물이 나오는 이치도 알려져 있지 않다. 질병으로는 결막염, 누도의 통과 장애 등의 경우에 눈물이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눈물의 분비량이 감소되는 것 등이 있다.

웃음과 눈물을 담고있는 작품 사례



웨민쥬ن Yue Minjun - 웃음 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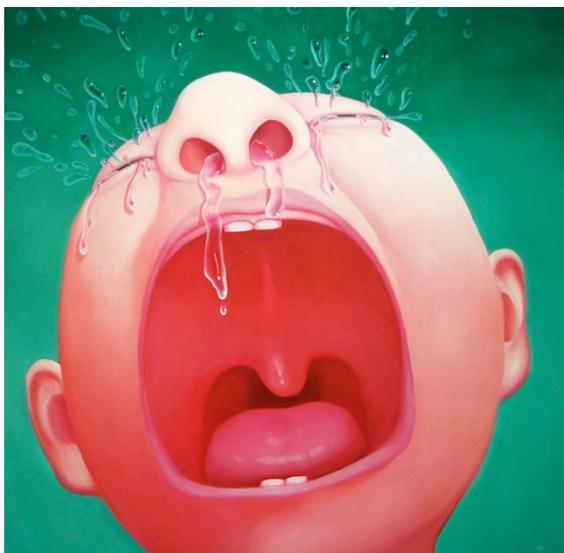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작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낸 채 활짝 웃는 특유의 인물 캐릭터로 유명하다. 냉소적 리얼리즘을 보여 주는 그의 작품은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작가 자신의 풍자와 탄핵, 집단화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웃음의 역설을 보여준다.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 게르니카, 우는 여인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퐁크, 몽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1934년에는 에스파냐를 여행하여 투우를 소재로 그렸으며 1936년의 에스파냐내란 때는 인민전선을 지지하고, 다음 해 프랑코 장군에 대한 적의와 증오를 시와 판화로 나타낸 연작 <프랑코의 꿈과 허언 虛言> 및 전쟁의 비극과 잔학상을 초인적인 예리한 시각과 독자적 스타일로 그려낸 세기의 대벽화 <게르니카>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통곡하는 여인>도 이 무렵의 작품이며 이때부터 피카소 특유의 표현주의로 불리는 괴기한 표현법이 나타났다.

인준 Yin Jun - 울음 연작



리히텐슈타인 Roy Liechtenstein - 행복한 눈물, 익사하는 여자



1960년대 전쟁만화, 연애만화 등.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만화를 다르게 꾸며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주로 감정적으로 극적 순간을 다루었다. 눈물 흘리는 여자 모습이 많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웃음과 눈물 - 웃음과 눈물의 심리

문학 작품 속에서 - 비극, 사랑, 감동

역사 속에서 - 전쟁, 자연 재해

이상심리

2. 연구 작품

표현 방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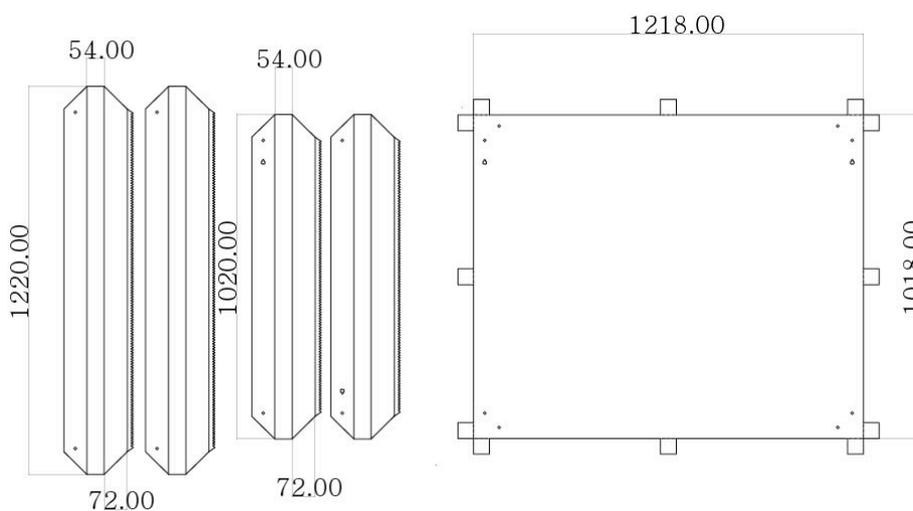
밀그림



레이저 자르기 기법을 통해 드로잉을 옮긴 사례

레이저 자르기

레이저 광선의 힘을 이용하는 절단 방법. 보통은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용되며, 산소-아세틸렌 불꽃보다도 절단폭이 좁고, 정밀절단에 적당하다.



<작업 '왜 눈물이 나는가'의 그림틀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

데이비드 겔스타인 David Gerstien



철이나 나무를 잘라내고 그 위에 밝고 대담한 빛깔을 얹은 작업으로 알려져있다.

톰 웨슬만 Tom Wesselmann



종이에 그린 그림을 레이저 자르기 기술로 금속널에 커다랗게 옮긴다.

금속 널 위에 그리기

젯소 위에 그리기

금속 널을 굽어서 그리기

디지털 프린팅

작품 결과



1) 왜 웃음이 나는가 Laughter/ 녹없는 쇠, 알루미늄, 마커, 펜, 조명기구/ 102 X 122 X 5 센티미터



2) 왜 눈물이 나는가 Tears / 녹 없는 쇠, 알루미늄, 마커, 펜 / 102 X 122 X 5 센티미터

작품 설명

1) 왜 웃음이 나는가

웃음을 터드릴 때 머릿 속이 온통 달콤한 색들로 가득차 기쁘고 행복한 기운이 퍼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림 각각의 부분들은 여러가지 선과 색, 실제 사진들이 어울려 하나의 콜라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들이 모여 활짝 웃고있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2) 왜 눈물이 나는가

'왜 웃음이 나는가'와 대비를 이루는 연작. 재료의 선택에서도, 사물의 의미에서도, 그림의 내용에서도, 서로가 상반된다. 반짝이고 무거웠던 녹없는 쇠 그림들은 텅텅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조명이 있어 확산되는 이미지였다면, 조명이 없는 차분한 이미지로. 그림이 안쪽에 화려하게 놓였다면, 그림은 모서리로. 그러나 작품의 크기는 똑같다. 우리는 가끔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뇌에서부터 신경세포를 지나 눈물이 흐르기까지의 현상을 재해석하여 표현했다.

* 결론

현대인들은 급변한 사회만큼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고독하다. 그로 인해 웃음과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기쁘고 슬픈 감정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밝은 채도의 빛깔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보는 이들에게 행복한 기분을 전하고자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밖에 액자 또한 조명 설치 용도와 더불어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현대 미술과 공예의 특징에 경계를 두지않고 관람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감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보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주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감정의 분출구이자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표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앞으로 참고하고 싶은 책

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 모니카 마론(김미선 옮김), <슬픈 짐승>, 문학동네, 2010
3. 신형철, <느낌의 공동체>, 문학동네, 2011
4.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5. 안 병상 뷔포(이자경 옮김), <눈물의 역사>, 동문선, 2000
6. 알랭 드 보통(정영목 옮김), <불안>, 은행나무, 2004
7. 베르나르 베르베르(이세욱 옮김), <웃음>, 열린책들, 2011
8. 밀란 쿤데라(백선희 옮김), <웃음과 망각의 책>, 민음사, 2011